

# 도내 공정무역 제품개발 돕는다

## 바이오진흥원, 식품제조기업 대상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역내 식품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공정무역 제품개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글로벌 소비자 운동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생산국과 환경 등을 보호하는 착한 소비를 유도한다.

다는 면에서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을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라북도 공정무역 제품개발 지원사업은 이와 같이 커피, 설탕, 코코아, 바닐라 등 개발도상국 공정무역 인증원료를 활용해 도내 농산품과 결합한 가공제품 개발을 지원, 제품군을 확장하고 도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바이오

진흥원은 도내 농산품과 결합한 공정무역 혁신제품개발 1건과 지역 공정무역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3건 등 2개 분야 4개 기업을 지원해 도내 공정무역 제품개발 및 판로확장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진흥원 홈페이지(www.jf.re.kr) 사업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이메일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공정무역 제품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대

표 지동훈)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정무역 원료의 원활한 공급연계 및 지역 농산품을 활용한 공정무역 제품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수 원장은 "전라북도 공정무역은 아직 초기단계로 공정무역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이 소수일뿐더러 인증 기업 및 인증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내 농산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무역 인증제품 확대와 인식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가치 확산에 진흥원이 적극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농협 전북검사국

### 식품안전 특별점검

#### 하나로마트 4곳 대상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전북검사국(국장 최한호)은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먹거리 공급을 위해 하나로마트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천동농협 종합감사 기간에 실시된 이날 특별점검에서 전북검사국은 해당 농협 하나로마트 4곳을 방문해 ▲수입 농산물 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준수 ▲식품위생 관리상 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최한호 국장은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국내산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검사국은 이날 특별점검 이후에도 농·축협 종합감사 기간에 식품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전북검사국은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먹거리 공급을 위해 하나로마트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 미래 노후준비 전문가 양성·인식 확산

### 국민연금, 강남대와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19일 노후준비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지난 2008년 공공분야 최초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후 노후준비 상담과 교육, 관계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대학교는 1953년 국내 최초로 사회사업학과를 개설하고 지난 2008년 심리산업학부를 신설한 복지·ICT융합 선도대학으로, 작년부터는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운영함으로써



경기 남부지역 주민에 대한 노후준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노후준비 교육과정 개설 및 강사 지원을 통한 노후준비 전문가 양성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노

후준비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 ▲노후준비서비스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노후준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강남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4개 영역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경기도 중장년 행복캠퍼스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노후준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박양숙 복지심원이사 겸 중앙노후준비센터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우리나라의 복지인재 양성을 이끌어 가는 강남대학교가 뜻을 한데 모았기에 노후준비 인식 확산에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후준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aT 제3기 농식품

### 수출마스터 과정' 개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농식품 수출업체 종사자들을 수출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식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제3기 농식품 수출마스터 과정을 개강했다.

지난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는 학계·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온라인 수출상품화 전략 해외 식품 트렌드 국가별 주요 통관 이슈, 바이어 발굴 및 대응기법 등 농식품에 특화된 수출 실무이론을 강의하며, 국내·외 현장연수도 진행한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케팅 실무,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최신 수출 트렌드 교과목을 집중 편성하고, 공사 해외지사 연계 온라인 실시간 강의도 제공해 실질적인 해외시장진출전략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청, 중국 신산업

###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19일 코트라 중국 무역관과 연계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투자설명회에는 중국 광저우의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건강식품과 관련한 1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새만금청은 미래 신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신단의 현황과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등의 투자혜택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우수한 지원정책과 매력적인 투자환경, 신항만과 신공항 등 필수 물류 기반시설이 속도감 있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유호상 기자

## 산학협력 매칭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 남원 농어촌공, 청소년 '그린 꿈 사다리' 운영 남원용성고 찾아 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경영비향인 ESG경영의 체계적인 기반확립과 농어업인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변화대응력 및 내부역량 강화와 경영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남원지사(지사장 이충호)는 공사의 사회적 책임 완수와 ESG경영 실천을 위해 농업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할 청소년들에게 산학협력 매칭(사다리 역할)으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원지사는 산학협력 일환으로 남원용성고를 대상으로 꿈나무 청소년들을 위한 '그린 꿈 사다리(Green Dream Bridge)'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학교를



한국농어촌공사남원지사는 산학협력 일환으로 남원용성고를 대상으로 꿈나무 청소년들을 위한 '그린 꿈 사다리(Green Dream Bridge)'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재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홍보와 채용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방문해 교사와 재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홍보와 채용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남원지사는 지속적으로 진로

특강 멘토링, 현장학습 등을 통해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할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고 ESG 경영인식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 '오월에 정기예금 특판' 인기 꾸준

### 가입 잔여 한도 1070여억원 이달 말까지 한도 내 가입

JB금융 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지난 3일부터 판매 중인 5월 가정의 달 특판 상품 '오월에 정기예금 특판'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12개월, 18개월 중 기간 선택 가능하며, 가입 잔여 한도는 19일 현재 약 1,070억원으로 이달 말까지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최대 연 2.60%(우대금리 연 1.20%(포함))로 고시 금리에 기본 우대금리 12개월 연 0.90%, 18개월 연 1.00%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예금 신규 익월부터 수시입출금 계좌의 6개월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0.10% 예금 신규 익월부터 수시입출금 계좌의 6개월 평균 잔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20%

추가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 맞이 오월에 정기예금 특판의 꾸준한 인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계속해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12개월, 18개월 중 기간 선택 가능하며, 가입 잔여 한도는 19일 현재 약 1,070억원으로 이달 말까지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최대 연 2.60%(우대금리 연 1.20%(포함))로 고시 금리에 기본 우대금리 12개월 연 0.90%, 18개월 연 1.00%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예금 신규 익월부터 수시입출금 계좌의 6개월 평균 잔액이

##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사기문자·전화 '주의보'

### 손실보전금 국회 추경안 확정 후 증기부 통해 시행 예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정책지원 대상의 주의를 19일 당부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사기문자·전화는 이용금지 조치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재경 청장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가급적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지방중기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 농진청, 오늘 '농촌다움과 농촌재생' 학술 발표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다움' 보전과 활용 방안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진청(청장 정재호)은 (사)한국농촌계획학회와 함께 20일 서울대학교에서 '농촌다움과 농촌재생'을 주제로 학술 발표회를 연다.

농촌 공간계획, 자료(데이터), 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이번 학술 발표회에서는 농촌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촌다움'에서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

협성대 이상문 교수가 '농촌다움과 과제', 서울대 손용훈 교수가 '농촌다움 회복과 살고 싶은 농촌'에 대해 발표하고, 농진청청정 최진아 연구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재생', (주)리넷 구진혁 대표의 '농촌다움과 지역

개발 시계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종합 토론에서는 정부의 농촌 정책과 연계한 농촌 재생 연구개발(R&D) 추진 방향, 국민이 공감하고 요구하는 미래 농촌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농진청은 학술 발표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반영과 현장 중심의 연구성과 도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농진청청정 농업환경부 김경미 부장은 "이번 학술 발표회는 농촌다움을 살리고 '힐터'로서 농촌 공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미래 농촌을 그려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다움이 보전되고 스마트한 미래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농촌 공간 재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농협-고창부안축협, 나눔축산운동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북지부(지부장 김시중, 고창부안축협조합장)는 19일 고창군 장애인복지과 부안군 경동요양원을 방문,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축산물을 전달하는 나눔축산운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나눔행사는 이창원 전북농협 부본부장, 이문규 농협고창군지부장 김시중 고창부안축협조합장 등이 참석해 함께했다.

김시중 조합장은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아 지역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후원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나눔축산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축산운동은 축산업의 사회공헌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사명받는 지속 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쳐는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운동이다. /김윤상 기자